

## 2. 투자 정보 및 IR 자료(8percent)

8 퍼센트는 국내 핀테크 초창기부터 주목받은 스타트업으로, 여러 번의 투자 라운드를 거치며 성장을 도모해왔습니다.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투자유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**시리즈 A (2015 년 5 월경):** 8 퍼센트는 서비스 개시 초기, **카카오 청년창업펀드(은행권청년창업재단)** 등의 지원을 받으며 첫 기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**DSC 인베스트먼트, SBI 인베스트먼트, 캡스톤파트너스** 등으로부터 총 **45 억 원** 규모의 초기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투자에는 일본계 SBI 그룹도 참여하여 국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. 이 자금을 바탕으로 8 퍼센트는 인력 보강과 플랫폼 고도화를 이루고,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여 P2P 금융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.
- **시리즈 B (2016 년 3 월):** 8 퍼센트는 설립 2 년차에 접어들면서 추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. 2016 년 3 월 경 진행된 시리즈 B 라운드에는 기존 투자자인 DSC, 캡스톤 외에 **알토스벤처스(미국계 VC)**가 새로 참여했고, 총 투자금은 약 **58 억 원**으로 추정됩니다(알토스는 다른 P2P 업체 렌딩에도 투자함). 또한 같은 해 2016 년 초에는 **신한카드**가 전략적 투자/협업 차원에서 8 퍼센트에 지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("한국 대기업/중견기업" 투자로 분류). 이를 통해 8 퍼센트는 금융권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신한카드와 함께 P2P 기반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에 협력했습니다.
- **시리즈 C (2018 년 10 월 & 2020 년 8 월):** 시리즈 C 투자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. **2018 년 10 월**에는 중국계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한 투자가 있었고, **2020 년 8 월**에는 **신용보증기금(한국 정부계정)**이 운용하는 혁신성장펀드 등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. 2018 년 투자에서는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 추산으로 **수십억 원대**였을 것으로 보입니다. 2020 년에는 **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직전**으로, 정부 측에서도 선도 핀테크인 8 퍼센트를 지원하고자 신보와 **산은(KDB)** 계열 펀드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로 인해 8 퍼센트는 약 **100 억 원 이상** 추가 자본을 확보하고 법 시행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(중대형 P2P 에 요구되는 30 억 원 이상 자본금 등)을 충족시켰습니다.

- **시리즈 D (2021 년 10 월):** 법 시행 후에도 8 퍼센트는 성장을 위한 투자금을 조달했습니다. 2021 년 10 월경 진행된 시리즈 D 라운드에는 해외 투자자가 눈에 띕니다. **미국의 사모펀드** 한 곳과 **일본의 벤처캐피탈**, 그리고 국내 벤처캐피탈 등이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. 이 투자 라운드의 상세 금액은 비공개지만, 누적 투자유치액을 감안할 때 수백억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번 라운드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이 8 퍼센트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에 베팅한 것으로 보이며, 이는 향후 8 퍼센트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**크로스보더 금융 플랫폼**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됩니다.
- **누적 투자금 및 기업 가치:** 스타트업 통계 플랫폼에 따르면 8 퍼센트의 **누적 투자금은 약 693 억 원**에 달합니다(2023 년 기준). 이는 P2P 금융 업계에서 최대 수준이며, 투자자 수도 8 개사 이상으로 다양합니다. 8 퍼센트의 기업가치는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으나, 마지막 투자 당시 추정 **Post-money 가치가 수천억 원** 대로 평가되었다는 업계 전언이 있습니다. 다만 P2P 산업 특성상 높은 손익분기점과 규제 환경 때문에, 투자자들은 8 퍼센트의 빠른 수익화와 시장 리더십 확보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.

**IR 및 경영 전략:** 8 퍼센트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**성과 지표**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 IR 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**건전한 포트폴리오 운용 성과**입니다. 예컨대 법인·기관 투자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8 월 기준 **기관투자자 누적 투자 규모 6,682 억 원**, 기관 투자자에 지급된 누적 이자수익 377 억 원, 연평균 수익률 10.59% 등의 수치가 공개되었습니다. 이는 8 퍼센트 플랫폼이 기관들도 믿고 돈을 넣을 만큼 안정적이며 수익성이 검증되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IR 포인트입니다. 또한 **연체율 1.7%, 5 년 평균 손실률 1.17%** 등 리스크 관리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.

투자 유치 시에는 **시장 지위와 법적 선도성**도 강조되었습니다. 8 퍼센트는 “국내 1 호 P2P 금융사”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, **2018 년 코스콤과 함께 P2P 통합플랫폼 구축 시범사업**을 진행하거나, **여러 정책 건의**를 통해 2020 년 P2P 법 제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. 이러한 **산업 리더 역할**은 정부 산하 펀드나 전략

투자자 설득에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. 실제 신용보증기금 및 산업은행 계열 투자 당시 8 퍼센트의 혁신성(금융 포용 기여)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

한편 8 퍼센트는 IR 에서 **사업 확장의 비전**도 제시합니다. 2025 년 리브랜딩 보도자료에 따르면, 향후 10 년간 **글로벌 서비스 확장**과 더불어 **지속적인 리스크 관리,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, 전략적 M&A**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투자자들에게 8 퍼센트의 **성장 스토리**를 어필하는 대목입니다. 구체적으로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는 싱가포르 등 해외 거점에 진출해 **역외 투자자금 유치**를 추진하거나,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상품 다변화로는 현재 주력인 신용대출 외에 **부동산 개발금융, 기업 매출채권 투자** 등 다른 대체투자 영역을 검토 중이고, 실제로 2025 년 7 월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대부업 대비 26% 금리 절감 효과를 냈다는 식의 기사도 발표되었습니다. 이런 성과들은 **사회적 가치와 사업 성장을 겸비한 모습**으로 IR 에 활용됩니다.

**주요 투자자와 지분구조:** 8 퍼센트는 현재 창업자 이효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으며, 여러 VC/PE 들이 일정 지분씩 나눠 보유하는 구조입니다. DSC 인베스트먼트, SBI 인베스트먼트, 알토스벤처스, 캡스톤파트너스 등 초기 투자자들이 일부 지분을 들고 있고, SKS PE 와 같은 대형 투자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(동일 PE 는뱅크샐러드에 투자). 전략적 투자자로 2016 년 신한카드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지분을 보유 중인지는 공개 정보가 없습니다. 대신 8 퍼센트는 **은행계 저축은행**들과 협력하여 기관투자 펀딩을 받은 적이 있는데, 이들 금융사가 지분을 취득한 사례는 없고 투자자(채권 투자)로만 참여했습니다.

**상장 계획:** 8 퍼센트는 아직 구체적인 상장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지만, 누적 투자 규모를 볼 때 중장기적으로 IPO 를 고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. 다만 P2P 금융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 모델 확립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고, 최근 수년 간 적자를 기록해온 재무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. IR 에서도 투자자들은 **흑자전환 시점**에 관심이 많았는데, 8 퍼센트는 2023 년 기준 당기순손실이 감소 추세이므로 **2~3 년 내 흑자**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만약 이를 달성하고 시장 분위기가 받쳐준다면 2026 년 이후 상장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상장보다는 **M&A(인수합병)**를 통한 회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데, 예컨대 대형 금융기관이 핀테크 역량 확보 차원에서 8 퍼센트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.

현재까지 구체화된 바는 없지만, IR 관점에서 경영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.